



2024년 10월 6일(제1214호) 연중 제27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할까요?”

찬미예수님! 저는 조카가 두 명 있습니다. 몇 년 전, 조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 한 번은 신나게 놀다가 “삼촌 좋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끄러운 듯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그제야 “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삼촌이 왜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그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왜 좋냐고 물어본다면 대개 이런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가족이든 친구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유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가령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사람을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잘 생겨서요.,” “키가 커서요.,” “착해서요.” 등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나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성인이 되면 조건, 이유들이 더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성격이나 인품을 떠나서 집안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 등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 조건들을 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을 하기 위해서”

내지 “~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이러한 조건들을 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사랑이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사랑의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시련과 불행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런 불행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 달라고 청하기보단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하는 원망과 의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조건에 맞춘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왜 사랑할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순수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그냥” 사랑할 때 찾아오는 단단한 믿음을 이루고, 거기서 오는 행복을 같이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김장준(리우렌시오) 신부
백미(육군 제9보병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창세 2,18-24
- 회 답 승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제 2 독 시 히브 2,9-11
- 복음 권 호 승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 복 음 마르 10,2-16
- 영 상 제 승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일곱 번째 시집

간월이라는 교우촌에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으나 모두 가난하여 공소집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떤 외교인이 와서 보고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집 꼴이 이래서야 쓰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 좋은 공소집 하나를 지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작년에 그 외교인은 자기 비용으로 훌륭한 공소집을 지어 주었고, 장식품으로 화려한 촛대까지 사 주었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뿐 아니라 조선 전국적으로도 이곳만큼 훌륭한 공소집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다블뤼 안(安) 부주교님께서 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너무 넓고 가장 멀리 퍼져 있는 일부 공소들을 대신 맡아 순방하시어 저의 짐을 덜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들을 제외한 제 관할 구역의 연말 성무 집행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규 고해자가 2,124명이고, 재고해자가 844명이며, 어른 영세자가 201명이고, 예비 신자가 361명입니다.

조선에서는 성영회(聖童會)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과부가 되거나, 또한 어머니를 잃은 갓난아기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맡깁니다. 그러나 아주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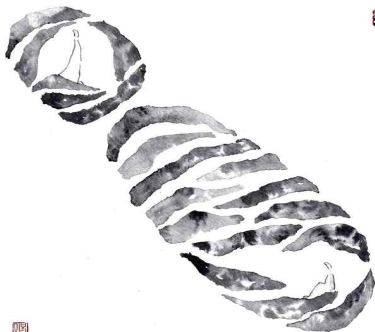
죽어가는 아기의 위험 대세를 집전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 풍속에 따라 낫선 남자는 집 안채에 결코 들여보내지 아니합니다. 남자들은 사랑방에만 드나드는데 아기 엄마와 유아는 거기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인이라도 신분 계급이 가장 낮은 여인이 아니면 타인의 집에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아기에게 접근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아기에게 대세를 줄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내게로



그 한 발 한 발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길을 걸어.
여기에.

그 마음 마음이
가볍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내게로 향하는
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눈길을 두고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피에타



미켈란젤로, 1498년~1499년경 제작
대리석, 174 × 195cm
성 베드로 대성당 / 이탈리아 로마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입구를 지나서 오른쪽의 작은 경당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작품 중 하나가 미켈란젤로가 23~24세에 제작한 ‘피에타’ 조각상이다. 미켈란젤로가 서명을 남긴 유일한 작품이기도 한 이 작품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슬퍼하시는 성모님을 묘사하고 있다.

매우 젊고 아름답게 묘사된 성모님의 무릎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축 늘어지다시피 놓여 계신데, 젊고 거의 별거벗으신 것 같은 매끄러운 피부로 조각된 예수님은 매우 연약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듯한 모습이다. 이 매끄러운 예수님의 몸과 성모님이 입고 계신 의복의 깊은 굴곡이 대비되어 더욱더 성모님의 슬픔이 강조되어 있다.



성모님의 상반신을 가로지르는 띠에 미켈란젤로의 이름(서명)이 새겨져 있다.

공중에 힘없이 축 늘어진 모습의 예수님의 발과 성모님의 왼쪽 손은 우리 쪽으로 열려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묵상을 유도하는 듯이 보인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של 위한 미사 - 연중 제27주일: 명성대 문정주 신부

◆ 교구장 통장

- 자운대(육군교육사)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6일(주일)
-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판문점 방문
 때: 10월 8일(화)

-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총회
 때·곳: 10월 10일(목) 14:00, CBCK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성서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